베냉/세네갈을 사랑과 복음으로 섬기는 since 2017

김민호, 양성진(다엘, 하겸, 라준) 선교사

"형제들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3-14)"

베냉에서의 9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세네갈로 사역지를 변경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은 여전합니다. 베냉에서 이루어 놓은 사역과 떠나는 아쉬움은 뒤로하고, 세네갈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명을 위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가 넘쳤던 고국 방문, 바울선교회 40주년

매 3년마다 열리는 바울선교회 전체 선교사 수련회가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세계에 흩어져 있던 400여 명의 바울 선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제 만경 바울 선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전주 안디옥교회에서는 선교사 자녀들(MK)의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선교지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은혜로 충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로 바울선교회가 시작된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40년을 넘어 미래로'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주님께 충성된 선교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7월 초에는 선교전주가 열려 양선교사가 조장으로 섬겼습니다. '베냉' 조로 모인 젊은 청년들이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오히려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체적인 나이는 청년의 때는 아니지만, 마음만은 늘 푸른 청춘으로 열방을 섬기도록 부르신 주님을 향한 충성된 일꾼이 되자고 다짐하게 됩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여러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지 베냉의 소식들을 나누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변방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저희를 생각하며 중보해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기도편지를 통해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베냉에서의 마무리와 세네갈로에서 새로운 시작

2017년 서부 아프리카 베냉 선교사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베냉에서 보낸 만 9년의 시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선교 보고 및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세네갈로의 이동에 대해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면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조금 놀라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세네갈로 사역지를 변경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초 불어권 현지인 선교사 훈련(FMF)을 마친 후 함께 동역하며 훈련원장과 코디네이터를 맡으셨던 정우석, 이유진 선교사가 바울선교회 OMOC(필리핀) 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네갈에 세워진 FMF를 저희 가정이 맡게 되었습니다. 같은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이지만 베냉과는 기후나 인종 구성이 매우 다르고, 종교적으로도 무

슬림이 97% 이상인 이곳에 정착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곳에서 현지인 선교사 훈련원을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서부 여러나라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선교학교를 진행할 것이고, 내년 후반기에는 2기 현지인 선교사를 모집하여 다른 서부 불어권 나라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냉에서 바이올린 사역은 갈렙 청년에게 이양이 되어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학 교수 사역과 어린이 전도협회 협력 사역은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긍휼의 마음' 고아원과 돌봄 센터 사역은 당분간 저희가 계속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자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사역을 이어서 감당해 줄 분과 아직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 사역하시는 바우리 김승식선교사님과 현지 동역자 로베를 통해 계속 소식을 주고 받으며, 재정적인 부분도 감당하려고 합니다. 재정적인 자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역을 섬김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긍휼의 마음 고아원' 과 돌봄 센터

지난 주 김선교사가 혼자 베냉에 가서 10년간 사용했던 짐들을 정리하고 왔습니다. 세 아들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과 추억들, 손때묻은 살림살이를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베냉에 돌아가도 머물 곳이 없다는 생각에 울컥한 마음도 들었고,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함께 했던 선교사님들, 동역했던 현지 목사님들,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긍휼의 마음 고아원에는 정부 인증 후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서 현재 16명(남 8, 여 8)의 아이들이 지냅니다. 거기에 돌봄 센터에 매주 세 번씩 참여하는 35명의 아이들까지 고아원은 아이들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현지 동역자 로베가 잘 맡아서 일을 하고 있고, 베냉 안에서도 동역을 일으키고 있지만, 아직 자립까지는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번 새학기에 '디딤돌 재단'의 도움으로 부족함 없이 아이들의 학용품과 교복, 통학용 자전거, 학비 등이 마련되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라이프 오브 더 칠드런' 단체에서는 아이들이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후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FMF(불어권 현지인 선교사 훈련원) 1기선교사님들 소식

지난 5월 1일에 파송 예배를 마친 후 막심 선교사는 세네갈로, 페르디낭 선교사는 감비아로 파송 받았습니다. 막심 선교사는 옆나라 기니 출신으로, 훈련을 마친 후 바로 세네갈에 남아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낯설은 곳에 정착하는데 다소간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함께 협력하는 알라인데 목사님의 도움으로 잘 낯선 언어와 문화를 배워가면서 정착하고, 적응하고 있습니다. 알라인데

목사님께서 막심 선교사와 함께 하면서 영적 성장을 위해 수고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막심 선교사를 만나고 왔는데,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시골 지역에 가서 전도집회를 하고, 결신자들을 양육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페르디낭 선교사는 감비아로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세네갈에서 예정되어 있는 전도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르디낭은 결혼하여 자녀들이 있는데,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선교지에 가려고 합니다. 가족이 함께 정착하는 것은 혼자일 때보다 더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겟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에 김 선교사가 페르디낭 선교사와 함께 감비아를 방문하고 정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닌가족 소식

다엘이는 대학 1학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여름 방학동안 학교에 남아서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하게도 선교사 자녀 수련회를 위해 2주간 잠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지만, 1년 만에 더 성장한 아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5일의 수련회 참석한 후에도 가족들 만나랴, 친구들 만나랴 연예인 급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하겸이와 라준이도 친구들 만나고, 한국의 발전된 문화를 누리면서 방학을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한국을 떠나면서도 아쉬운 마음을 가득 안고 떠나왔습니다. 이제 하겸이는 고3으로 입시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학교를 찾아가고,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준이도 벌써 10학년에 올라갔습니다. 제법 진지하게 학업에 임하는데, 여전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뜨겁게 느끼고, 주님을 위해 준비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자라가는 다하라 형제들 되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제목

1. 전체 수련회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고, 여러 후원 교회들과 후원자들과 만남을 통해 베냉과 세네갈에 대한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
2. 가족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재회하고 오랜만에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
3.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1기 베냉에서의 9년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세네갈에서 2기의 사역으로 현지인 선교사 훈련원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
4. '긍휼의 마음' 고아원과 돌봄 센터 아이들의 2026-27 신학기 준비에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

베냉/세네갈과 코닌 가정을 위한 기도제목

1. 베냉의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베냉을 잘 이끌어가는 정직하고 능력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2. 베냉의 교회가 이슬람 지역의 복음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3. 97% 무슬림의 나라 세네갈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이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4.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선교사 가정이 되고, 세네갈의 새로운 환경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5. 다엘(대학 공부와 군입대), 하겸(대학 진로 결정)과 라준(고등학교 생활)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제(Ze) '긍휼의 마음 고아원' 과 돌봄 센터를 위한 기도제목

1. 고아원의 16명 친구들, 35명의 돌봄 친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고, 이들의 정서적, 신체적, 영적 성장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2.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현지 디렉터 로베를 비롯한 직원들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3. 고아원과 돌봄 센터의 부지 구입, 담장 설치, 재정 자립을 위해서

FMF(불어권 현지인 선교사 훈련원)와 파송선교사를 위한 기도제목

1. 내년도 2기 훈련을 위한 장소 섭외와 훈련생 모집 등 준비를 위하여, 세네갈 교회 리더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동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2. 막심(세네갈)과 페르디낭(감비아) 선교사의 선교지 정착과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3. 불어권 선교사 훈련원과 파송 선교사를 위한 기도와 재정의 동역자가 일어나도록